

<하기 글은 2020년 1월 6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난 12월 24일,『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12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환경 회의인 만큼 소통협의회 정기회의 시작은 “해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노사담당 최준희 수석의 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준희 수석은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소통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삼성전자와 평택시 간의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각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택캠퍼스 반대편 이주주택지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평택시청측에서 삼성전자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청과 삼성전자 회의를 진행한 후, 관계사(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계도활동을 시작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캠퍼스 인근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2019년 3월 캠퍼스 인근 고가차로 공사지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당시 전수점검을 시행하였고, 삼성전자 임직원과 관련한 불법 주정차는 3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 제기한 삼성물산 건설인력의 무단횡단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인근에 원수막을 부착하고 삼성물산에서도 계도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무단횡단 인원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구 위원이 지난 12월 20일에 진행된 평택엔젤스가 후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제7회 정기연주회 소식을 전하며 많은 지역주민의 호응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빤전나눔 봉사활동과 관계사 연합 사회공헌활동,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 등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